

용이 승천하는 통로 역할의 소나무

지정번호	강원-원주-69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지정년도	1982	학곡리 258-1
관리기관	원주	37° 26' 04.32" N
수령	310년	128° 04' 01.69" E
수고	13m	
흉고둘레	4m	



줄기가 약간 꼬여 있는 보호수(강원-원주-69) 소나무는 마을의 완만한 구릉지에 자라고 있다. 소나무의 나이는 310년이다. 나무높이는 13m, 가슴높이둘레는 40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일부 가지가 아래로 드리워 있어 전체적으로 샷갓 모양이다. 원줄기는 높이 3.5m 정도에서 2갈래로 갈라지고, 한 줄기는 3갈래로 갈라져 한 몸인 것처럼 꼬여 엮어서 사방으로 뻗기도 하고, 일부가 지표면까지 처져 있다. 위쪽의 가지 줄기는 비틀린 용틀임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줄기는 외과수술 흔적이 있으나, 생육상태는 양호하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용과 관련이 많다. 치악산 용소에 용이 9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그중 8마리는 하늘로 승천하였다. 승천하지 못한 1마리의 용은 용소물을 따라 내려오면서 용너미, 용고개를 지난 후 이 소나무를 통하여 승천하였다고 하여 '용소나무'라 불렀다. 또 다른 이야기는 치악산 구룡사 창건설화와 혼합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시기적으로 맞는 건 아니다. 의상대사가 구룡사의 절터로 점지한 연못에는 9마리의 용이 살고 있었다. 의상대사는 용과의 도술 시험에서 이겨 절을 짓게 되었고, 시험에서 패한 용들은 약속대로 모두가 하늘로 날아갔다. 9마리 중 8마리는 천지봉쪽으로 해서 동해로 날아갔는데, 1마리는 미처 날아가지 못하고 구룡사 위에 있는 용소에 머물게 되었다. 용소에 머물던 1마리는 용소의 물을 타고 내려오다 용고개를 넘어 마침내 소나무를 통하여 하늘로 날아갔다. 그래서 이 소나무를 '용소나무'라 불렀다. 구룡사는 의상대사가 668년 창건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으나 이 소나무의 나이가 310년 이므로 시기의 차이가 많은 편이다. 마을 사람들은 소나무를 당산목으로 신격을 부여하여 3월 삼짇날이나 9월 중양절에 마을의 안녕과 화합을 위하여 정성껏 제를 올렸다. 또한 주민들은 대소사가 있을 때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정화수 한 그릇을 바치고 이 소나무에 소원을 빌며 마음의 평온을 찾았다.